일본에서 수입된 면 컴팩트사가 정착

최근 수년 동안엔 면 컴팩트사가 일본의 섬유 시장에서 확실히 정착된 만큼 이제는 정번화하였다는 말도 많다. 실제로 이미 보통의 수입 컴팩트사는 차별화된 실이 아니라는 심한 말도 들릴 정도가 되어 정착하였다는 뜻도 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컴팩트사는 상사나 방적 기업들이 이 실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짜낼 필요성이 생겼다.

일본이 1년에 수입하는 컴팩트사의 양은 정확한 숫자로 알 수는 없으나, 연간 수입량은 수입 코머사의 10% 정도라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2004년의 수입량을 단순히 이러한 방식으로 추정하면 약 2만 5천곤이 된다. 2003년의 연간 통계에서는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코머사의 수입량이 카드사의 수입량을 웃돌았다. 이러한 결과는 코머사로 분류되고 있는 컴팩트사의 수입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최근에 새로 컴팩트사의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한 유니치카텍스타일은, 2004년에 인도의 제휴 기업인 람코 그룹으로부터 컴팩트사 약 10t을 수입하여 시험적으로 일본 내에서 판매하였다. 2004년 7월에는 기술을 지도해 주고 있는 이 그룹의 다른 공장에도 컴팩트 정방기를 도입하여, 인도면으로 뽑은 “람코”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컴팩트사의 수입량이 제일 많다는 이토추(伊藤忠)상사는 2004년도의 판매량이 2003년도 보다도 50% 정도 증가하였다. 이토추의 면사ㆍ면 직물과(課)에서 판매량이 크게 늘은 배경에는 유저에 대한 SCM(Supply Chain

Management)에 따라 제안하여 업스트림(up-stream)로부터 다운스트림(down-stream)까지 구체적으로 구성한 기획 제안형 판매 수법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축소화하고 있는 일본 내 시장만으로는 판매 대상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다음 단계는 해외로 판로를 개척하여야 할 단계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토추는 홍콩 섬유원료법인 이토추섬유원료(ITM)를 활용한 3국 간 무역이 진행되어, 원사 공급처는 중국 상대가 50%로 확대되었다. 일본 상대뿐이 아니라 구미 상대로 수출되는 제품의 소재를 노린 판매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쵸리(蝶理)가 횡편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페루산 "안데스 전설"은 2003년보다도 100t정도 수입량이 줄었다. 이와 같이 줄은 것을 종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홍콩이나 상하이의 현지 법인을 통하여 QR(quick response)의 스톡 판매를 시작하였다.

인도산 "알티마"를 중국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도코보는 2004년말에 상하이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기술 지도할 연사 협력 공장도 선정하여, 보통 연사, 강연사, 많은 올 연사 등도 현지에서 알맞게 조치하여 강한 방적의 힘을 발휘하겠다는 생각이다.

컴팩트사의 용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이제까지는 "잔털이 적다", "촉감이 좋다" 등의 원사의 특징을 살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원되기 쉽던 니트에도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도코보의 경우 "알티마"가 횡편 용도로 전년보다도 배 이상 판매량이 많아

졌다. 유럽산뿐만 아니라 가격이 한 단계 낮은 아시아산 컴팩트사의 판매를 2년전부터 시작한 미쓰비시 상사는 원형 편성용으로 수요가 늘어났다. 원료 자재부에서는 가격이 적절하여 사기 쉽고 가공 기술이 향상되어 니트에 사용하여도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것이 수요가 늘어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마루베니(丸紅)도 한때 컴팩트사의 수입을 중단하였었는데, 요즘은 특정 고객에게 니트용을 SCM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니즈가 있으면 수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코(新興)산업도 인도 원면으로 뽑은 "소레이유"의 컴팩트사를 단골로 되어 있는 니트 분야에 공급하고 있다.

정번으로 된 컴팩트사에 대하여 더욱 차별화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도코보는 컴팩트 정방 교연사 "알티마 Duo"를 다음 춘하절용 소재로 판매하고 있고, 이토추도 같은 정방 교연사 "노블트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도멘(東綿)에서는 도요다통상과 공동으로 방적으로부터의 차별화를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컴팩트사의 차별화도 급속도로 추진될 것 같다.♣